

# 김춘수의 「처용단장」에 나타나는 시간의식에 대한 연구

－ 후설의 현상학적 시간의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문혜원\*

1. 들어가는 말
2. 회상을 통한 과거 경험의 재구성
3. 파지적 시간의 시적 형상화
4. 파지와 예지가 만나는 근원 지점으로서의 ‘살아있는 현재’
5. 맺는말

## 〈국문초록〉

김춘수의 시에 나타나는 시간 인식은 객관적인 시간에서 의식 경과의 내재적 시간을 탐색하는 것으로 변모된다. 「처용단장」은 의식 내적인 시간이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시이다. 「처용단장」의 시간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단절된 한 지점이 아니라 주체에게 시적 순간 혹은 사건이 발생하는 의식 내적인 시간이다. 그것은 파지와 지금, 예지로 지칭되는 후설의 현상학적인 시간으로 설명될 수 있다.

현상학적 시간의 측면에서 볼 때, 「처용단장」은 파지와 예지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과 결합된 ‘살아있는 현재’를 품고 있다. 파지는 시의 화자가

---

\*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현실적인 계기에 의해 과거 경험을 불러오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열려있는 채로 지속되고 있는 경우이다. 트라우마는 원인이 되는 경험이 은폐된 채 남아 있다가 유사한 사건의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사건과 중첩되어 작용한다. 여기서 과거는 완료되거나 현재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단지는 은폐되어 잠재적인 상태로 지속된다. 따라서 트라우마가 드러나는 시들은 후설의 시간의식 중 ‘파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파지는 회상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회상에서 기억은 ‘지금’ 시점에서 환기되기는 하지만 현재와 무관한 것으로서, 과거 경험에 대한 인상을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된 것이다. 재구성된 기억 또한 과거의 일부로서 환기될 뿐 현재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와 달리 파지는 현실적인 사물이나 대상이 계기가 되어 기억을 촉발시키고 그것이 과거로부터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예지는 기본적으로 파지적 지평을 바탕으로 한다. 과거 경험에서 있었던 대상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거나, 과거의 만남을 바탕으로 하여 어디선가 만남이 이어지고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과거가 현재에 지속되고 있는 파지적 지평과 이에 바탕한 예지적 지평은 ‘지금’을 중심으로 하여 삼중으로 겹쳐지면서 각각 전후로 뻗쳐져 있는 셈이다. 후설은 이처럼 파지와 예지가 하나로 통합된 ‘지금’을 ‘살아있는 현재’라는 표현한 바 있다. 김춘수의 「처용단장」에는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난다.

「처용단장」은 대상을 제거한 이전 단계의 무의미시와는 달리 대상이 지니고 있는 지평적 지향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시간의식의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지각된 대상의 시간성과 그것을 지각하는 주체의 시간성을 아울러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주제어** : 처용단장, 시간의식, 후설, 현상학, 회상, 파지, 예지, 지금, 살아있는 현재

## 1. 들어가는 말

시에 나타나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이고 의식 내적이다. 객관적인 시간들 예컨대 역사적 사실과 같은 시간들이 개입되긴 하지만, 그때도 시의 관심사는 그 객관적 시간들에 대한 주체의 기억이나 정서, 생각과 같은 주관적인 반응에 있다. 이런 면에서 시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현상학적이다. 현상학에서 중시되는 시간은 경험되는 세계의 실제 시간 혹은 객관적으로 측량되는 시간이 아니라 의식 내적인 시간의 흐름이다. 후설에 따르면 그것은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흐름으로서 본질적으로 주체의 외부에 있는 대상을 지향하고 있다. 주체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외부의 대상을 지각하게 된다. 의식 내적인 시간은 외부 대상의 시간성을 인식하는 주체의 지각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현상학적 측면에서 내적 시간의식을 분석하는 것은, 지각의 대상의 시간성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을 지각하는 주체의 시간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각된 대상의 지각은 지각의 경과와 지속을 포함한다. 시간의식의 내재적인 시간 안에서 지각함의 지속뿐 아니라 또한 지각된 것의 지속도 형성된다.<sup>1)</sup> 이런 연유로 해서 현상학적 시간 분석은 대상의 시간성과 그것을 지각하는 시인의 시간의식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된다.

김춘수의 시에는 이미 초기부터 시간에 대한 인식들이 드러난다.<sup>2)</sup> 전후

---

1) 이기상, 「시간, 시간의식, 시간존재」, 계간 『과학사상』, 2000.봄, 74쪽. 이는 “우리는 객체지속의 경과 양상들의 연속성에 대해 지속의 각 시점의 경과양상들의 연속성을 대립시키고 있다. 각 시점의 경과양상들의 연속성은 객체지속의 경과양상들의 연속성에 자명하게 포함되어 있다”(에드문트 후설, 이종훈 역, 『시간의식』, 한길사, 1996, 93쪽)라는 대목과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다. 즉 지각의 연속성은 지각 대상의 연속성에 포함되어 있다.

2) 시간을 주제로 하여 김춘수 시를 연구한 다수의 논문들 중 본고의 연구 대상인 「처용단장」과 무의미시의 시간의식을 주제로 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 김용태, 「무의미시와 시간성」, 『어문학교육』 9집, 한국어문교육학회, 1986 ; 남기혁, 「김춘수의 무의미시론연구」, 『한국문화』 24,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9 ; 조혜진, 「김춘수 시 연구-시간의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박은희, 「김종삼 김춘수 시의 모더니티 연구 : 시간의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김성희, 「김춘수 시의 시간

에 발표된 그의 시들은 다른 전후시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이나 소멸에 주목하고 있다.<sup>3)</sup> 소멸이나 죽음이라는 유한성을 전제로 할 때 시간은 선조적인 것으로서 ‘흘러가버리는’ 것이고 그 끝은 죽음 혹은 종말로 나타난다. 이는 시간을 실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객관적인 시간관에 바탕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김춘수의 생각은 중기에 해당하는 『타령조 기타』에서부터 조금씩 변모하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현상학적 사유<sup>4)</sup>의 전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이때 시간은 경험 세계의 실재가 아니라 ‘의식 경과의 내재적 시간’을 의미하는 현상학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유년의 기억과 트라우마를 소재로 하고 있는 「처용단장」 연작은 의식 경과의 내재적 시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창작 시기로 볼 때 「처용단장」은 김춘수 초기 시에 나타나는 존재론적인 고민이 현상학적인 관심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다. 「처용단장」은 60년대 후반에 발표될 때부터 시집 『처용단장』으로 묶이기까지 이십여 년 간에 걸쳐 창작되었다. 그만큼 각 부의 시들은 실제 창작 시기나 내용, 특징이 다르다. 1,2부와 3,4부 사이에는 십년 이상의 시간적 간극이 있다. 1부와 2부는 몇 년간의 간격을 두고 쓰여졌고, 4부는 3부의 연장선상에서 잇달아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다.<sup>5)</sup> 그러나 내용상으로 볼 때 4부의 시들은 대부분 90년대 이후의 상황으로서, 유년의 기억이나 트라우마가 드러나는 3부까지의 시들과는 시의 내용이나 주제 자체가 다르다. 또한 시의 시간적 배경과 실제 창작 시간이 동일하고 시간의식이 특별히 두드

---

의식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서영희, 「김춘수의 「처용단장」에 나타난 시간의식」, 『한민족어문학』 61집, 한민족어문학회, 2012 등.

- 3) 줄고, 「김춘수의 시와 시론에 나타나는 현상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 후설 현상학과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86집, 한국언어문화회, 2013 참고.
- 4) 현상학은 김춘수의 초기시부터 후기시까지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 초기시의 중요한 주제인 존재론적인 관심은 현상에 대한 탐구로 연결되어 서술적 이미지, 무의미시 등의 개념으로 옮겨간다. 특히 초기시부터 무의미시에 이르기까지의 시들은 현상학적 판단중지와 지향적 관계를 중요 개념으로 하는 후설의 현상학적인 성격이 강하다. - 위의 논문 참고.
- 5) 김춘수, 『처용단장』, 미학사, 1991, 144-145쪽 참고.

러지지 않는다. 현상학적 시간 의식이 나타나는 것은 4부를 제외한 1~3부까지의 시들이다.<sup>6)</sup>

「처용단장」의 서술 시점은 기본적으로 현재에 중심을 두고 있다. 화자는 유년 시절을 회상하거나 과거 경험에서 형성된 트라우마를 드러낸다. 각각의 경험적 사실들은 현재 혹은 특정한 과거의 한 시점에서 호출되고 재생된다. 과거 경험은 트라우마 형태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연결된다. 이런 면에서 「처용단장」의 시간은 후설의 현상학적 시간의 흐름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후설은 시간의식의 근본 지점을 ‘지금’이라고 보고 그것을 시간의 근원적인 지점 혹은 ‘근원인상’이라고 말한다.<sup>7)</sup> 현상학적인 ‘지금’은 과거나 미래와 단절된 순간이 아니라 그 자체가 ‘파지’(이미-지금-아님)와 ‘예지’(아직-지금-아님)<sup>8)</sup>라는 일차적 기억과 일차적 기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지금’은 과거의 경험이 바탕으로 된 상태에서 성립되고 ‘지금’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의 것을 예측하게 된다. 후설은 세 가지 시간이

6) 「처용단장」 1~3부까지의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현상학적 시간과 시간적 표지 자체가 삭제된 무시간성이 그것이다. 이때 무시간성은 초월적인 시간 혹은 영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무관한 실험시를 말하는 것이다. 즉 시간이라는 표지가 의도적으로 배제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다오” 형태가 반복되는 2부의 시들이나 음절을 자음과 모음으로 해체해서 배열하는 등 문자 자체로 실험을 시도하는 3부의 시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시간성을 초월이나 영원으로 해석한 연구로는 남기혁과 김성희의 앞의 논문이 있다.

7) ‘근원인상’은 “지속하고 있는 객체의 산출이 시작되는 원천 지점”(에드문트 후설, 앞의 책, 94쪽)이다. 어떤 것이 현행적으로 지각된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원인상이라는 근원적인 감각적 소여의 자기 발생이 주어져 있어야 한다(조광제, 『의식의 85가지 얼굴』, 글항아리, 2008, 123쪽).

8) 이 부분에서는 ‘지금’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미-지금-아님’과 ‘아직-지금-아님’이라는 김상록의 번역을 병기했다(김상록, 「시간과 지향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1쪽). 번역자에 따라서 이는 각각 ‘과거지향(뒤로-뻗어-잡음)/‘미래지향(앞질러-뻗어-잡음)’(이기상, 앞의 글), 혹은 ‘파지/‘예지’ (김영민, 『현상학과 시간』, 까치, 1994 ; 조광제, 앞의 책) 등으로 번역되는데, 이하 본고에서는 ‘파지’와 ‘예지’라는 번역을 사용하기로 한다. 김상록 또한 해당 페이지 이하에서는 ‘과거지각(파지)/ ‘미래지각(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삼중적으로 겹치는 ‘지금’을 ‘살아있는 현재’라는 말로 표현함으로써 의식 내적인 시간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본고는 「처용단장」에 나타나는 시간의 특징이 후설의 현상학적 시간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여기에 나타나는 김춘수의 시간의식을 현상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 2. 회상을 통한 과거 경험의 재구성

「처용단장」의 시간은 전반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고향과 연결되어 있는 유년의 기억이나 청년기의 수감 체험 등이 시의 원재료들이다. 그러나 이같은 소재를 시간적으로 어떻게 배치하는가 혹은 구성하는가에 따라 세부적인 시간의식은 구별된다.

「처용단장」 제1부는 주로 유년의 기억을 바탕으로 하여 과거의 경험들을 기억하고 재배치하고 있다. 호주 선교사의 집, 내리는 눈, 눈앞에 펼쳐진 바다, 같이 놀던 아이들 등의 기억은 어린 시절의 실제 경험들로서 그의 산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 이 시들은 시인에게 각인되어 있는 과거 인상들을 현재로 불러내어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벽이 걸어오고 있었다.  
늙은 왜나무가 걸어오고 있었다.  
한밤에 눈을 뜨고 보면  
호주 선교사네 집  
회랑의 벽에 걸린 청동시계가  
겨울도 다 갔는데  
검고 긴 망토를 입고 걸어오고 있었다.  
내 곁에는  
바다가 잠을 자고 있었다.  
잠자는 바다를 보면  
바다는 또 제 품에  
송어새끼를 한 마리 잠재우고 있었다.

다시 또 잠을 자기 위하여 나는  
 검고 긴  
 한밤의 망토 속으로 들어가곤 하였다.  
 바다를 품에 안고  
 한 마리 송어새끼와 함께 나는  
 다시 또 잠이 들곤 하였다

— 「처용단장」 제1부 3 부분

1연은 잠든 ‘나’의 꿈 혹은 가위눌림을 재현한 부분이다. ‘나’는 비몽사몽간에 벽과 늪은 왜나무가 걸어오고 호주 선교사 집에 걸린 청동시계가 걸어오는 환상을 본다. ‘나’는 어둠 속에서 자고 깨기를 반복하는데, 바다는 그 시절의 공간적 배경이다. 늪은 왜나무나 청동시계, 바다 등은 실제 있었던 사물이나 배경이지만, 그것에서 ‘나’가 기억하는 것은 그것들이 걸어왔다거나 바다가 송어새끼를 안고 있는 것 같다는 주관적인 인상이다.

바다가 원종일/ 새앙쥐같은 눈을 뜨고 있었다.  
 이따금/ 바람은 한려수도에서 불어오고  
 느릅나무 어린잎들이/ 가늘게 몸을 흔들곤 하였다.

날이 저물자/ 내 늑골과 늑골 사이  
 흠을 파고/ 거머리가 우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베꼬니아의/ 붉고 붉은 꽃잎이 지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다시 또 아침이 오고  
 바다가 또 한 번/ 새앙쥐같은 눈을 뜨고 있었다.  
 푹 푹 푹, 천阡의 사과알이/ 하늘로 깊숙이 떨어지고 있었다.

가을이 가고 또 밤이 와서

잠자는 내 어깨 위/ 그해의 새눈이 내리고 있었다.  
 어둠의 한쪽이 조금 열리고/ 개동백의 붉은 열매가 익고 있었다.  
 잠을 자면서도 나는/ 내리는 그  
 희디흰 눈발을 보고 있었다.

— 「처용단장」 제1부 1 전문

위 시에서 두드러지는 것 역시 바다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이다. “바다가 원종일/ 새앙쥐같은 눈을 뜨고 있었다.”라는 구절은 1연의 첫 행에서 시상을 전개하는 계기가 되고 3연 “다시 또 아침이 오고/ 바다가 또 한번/ 새앙쥐 같은 눈을 뜨고 있었다”에서 ‘다시 또’, ‘또 한 번’ 같은 부사가 붙은 채 반복되고 있다. 이는 화자가 과거에 받았던 강렬한 인상이 상상 속에서 반복해서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느낌나무 잎, 사과, 흰 눈 등 다른 기억들과 연결되면서 과거의 장면을 상상 속에서 재구성한다. 이 시의 네 개의 연이 사실상 동일한 시간대에 있지 않은 것<sup>9)</sup>은 이러한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sup>10)</sup> “새앙쥐같은 눈을 뜨고 있었다”, “산다화가 바다로 지고 있었다”, “느린 햇발의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등에서 반복되는 과거진행형 ‘~있었다’는, 해당 사건이 과거의 한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었음을 표시한다. 화자는 과거의 인상을 선택하여 기억되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이는 과거 사실을 불러와서 의식의 전면으로 재현한 것으로서 과거에 지각된 것을 상상 속에서 다시 기억하는 ‘회상’에 해당한다. 회상에서는 과거는 현전화된 과거<sup>11)</sup>이지만, 실제로 현재의 지각이나 일차적으로 직

9) 줄고, 「김춘수의 무의미시의 현상학적 특징 연구」, 『Comparative Korean Studies』, 22권 1호, 2014 참고. 이 글에서는 이 시를 ‘선택적 기억을 바탕으로 한 대상의 재구성’으로 설명한 바 있다.

10) 이 시의 구절들은 독립된 채 「처용단장」의 다른 시들을 구성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1연의 “이따금/ 바람은 한려수도에서 불어오고”라는 구절은 「처용단장」 제1부 12에서 “봄이 와서/ 바람은 또 한 번 한려수도에서 불어오고/ 겨울에 죽은 네 무르팍의 피를/ 바다가 씻어주고 있었다.”라고 하여 다른 맥락 속에 자리하고 있다.



관된 과거는 아니다.<sup>12)</sup> 이는 과거에 지각된 것을 상상 속에서 다시 기억하는 것으로서 연상적 동기부여라는 매개를 통해 나타나는 ‘이차적 기억’이다.<sup>13)</sup> 특정한 과거의 경험은 현재와의 연속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환기되고 상상을 통해 재구성된다. 그것은 과거의 시점에서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재배치하는 것이고 단절된 자료들을 재구성해내는 것이다.

꿈이던가,  
旅順감옥에서  
丹齋선생을 뵈었다.  
땅 밑인데도  
들창 곁에 뱃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뱃나무는 가을이라 잎이 지고 있었다.  
조선사람은 무정부주의자가 되어야 하네  
되어야 하네 하시며  
울고 계셨다.

(중략)

나는 그 때 세다가와서  
감방에 있었다.  
땅 밑인데도

- 
- 11) 회상 즉 이차적 기억은 망각 속으로 망실되어서 더 이상 현재와의 경험적 의식적 연속성을 상실해버린 부분을 다시 복원시키는 구체적인 기억행위를 말한다. 즉 회상은 특정한 과거의 사태를 현재화하는 것이다. - 김영민, 앞의 책, 64쪽 참고.
- 12) 후설에게서 파지와 회상은 각각 일차적 기억과 이차적 기억에 해당한다. 일차적 기억은 방금 전에 존재한 것, 체험한 것으로서 지각과 직접 연결된 의식이지만, 이차적 기억은 지각된 것을 상상 속에서 다시 기억하는 것이다. - 에드문트 후설, 앞의 책, 97쪽, 역주 19 참고.
- 13) 위의 책, 104쪽, 역주 24 참고.

들창 곁에 벚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벚나무는 가을이라 잎이 지고 있었다.

— 「처용단장」 제3부 3 부분

이 시는 감방에 수감되었을 때의 일을 소재로 하고 있다. ‘그 때’란 화자가 기억하는 과거의 특정한 시간으로서 현재와는 무관하게 과거 속에 맥락을 가지고 있는 완결된 한 시점이다. 그 시점에서 화자는 신채호와 자신의 상황을 동일시하며 감방 생활을 견뎠다. 이러한 내용은 ‘그 때는 그랬다’라는 회고적 어투로 전달됨으로써 현재의 사실과 구별된다.

그러나 이는 회상의 내용이 현재와 단절되어 과거의 고통을 망각하거나 무화시킨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드러나는 과거 경험은 현재의 고통과 연결되는 기본적인 원체험이다. 즉 회상의 내용은 주체에게 각인된 원체험으로서 파지를 가능하게 하는 원 자료 역할을 한다. 따라서 회상과 다음 장에서 설명될 ‘파지’가 단절된 형태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각각의 시들을 분석할 때, 과거의 경험 자체를 서술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시들이 회상에 해당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현재화되는가 즉 과거 경험의 현재적인 지속을 보여주는 시들에서 나타나는 시간을 파지라고 할 수 있다.

### 3. 파지적 시간의 시적 형상화

회상이 과거에 이미 완료된 경험을 재구성하는 것임에 반해, 파지 혹은 일차적 기억은 ‘현재가 드러나는 배경의식의 통합된 전체’로서 과거에서부터 계속되는 경험의 장이다. 이 때 시간적 여러 국면들은 현재적 국면과 연속성을 유지한다. 그것은 이차적 기억인 회상과 달리 ‘지금’의 현실적인 지각과 연결되어 있다.

시간의식과 관련하여 설명할 때, 트라우마의 발현은 그 자체가 과거

경험이 현재와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트라우마의 원인이 되는 사건은 잠재되어 있다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환기되면서 새로운 사건과 중첩되어 병인으로 작용한다.<sup>14)</sup> 이것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최근 혹은 현재의 시점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과거 경험을 단순히 기억하는 회상과는 다르다. 이때 과거의 경험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은폐된 채로 늘 의식의 지평에 있다.<sup>15)</sup>

무엇이 그렇게도 미안한지  
 21년하고도 일곱 달  
 별이 드는 쪽으로는 한 발짝도  
 발을 떼지 않는다.  
 그네  
 베라 피그넬의 뒷덜미에  
 오늘은 진한 은회색의  
 진눈깨비가 내린다. 배고픈 듯  
 한 번 더 미안한 듯,

— 「처용단장」 제3부 23 전문

「처용단장」에서 종종 드러나는 시인의 트라우마는 주로 감방에 수감되었던 경험과 연결된 것이다.<sup>16)</sup> 위의 시는 ‘수감’이라는 상황을 소재로

14) 이것은 프로이트의 사후성 논리와 연결해서 설명될 수 있다. 사건 1은 발생 당시에는 주체에게조차 현전되지 못하고 잠재된 기억으로 남아있다가 유사한 사건 2가 주어지면 비로소 환기된다는 것이다. 개개의 사건들은 그것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집적되면서 신경증의 병인으로서 완성된다. - 서동욱, 『들뢰즈의 철학』, 민음사, 2002, 80-83쪽 참고. 트라우마는 그 자체가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는 두 개 이상의 인지가 모여야 가능한 것으로서, 과거 기억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15) “이같은 은은한 현시는 모든 파지 단계의 증여가 드러내는 본래의 양상이다. 이 단계들은 회고의 대상이 되기 전에도 항상 의식의 지평에 있다” - 미셸 콜로, 정선아 역, 『현대시와 지평구조』, 문학과지성사, 2003, 75쪽.

16) 「처용단장」 제3부에서 수감 경험의 트라우마와 관련되어 있는 시들은 3~10, 14까지 모두 14편이다. 「처용단장」을 김춘수의 트라우마와 관련하여 해석한 논문

하고 있고 타자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2장에서 설명된 「처용단장」 제3부 3과 공통점이 있다. 김춘수와 신채호, 베라 피그넬은 수감 경험이 있다는 공통점으로 하여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란히 연결된다. 이는 나와 타자의 경험을 동일시하며 자신의 트라우마를 전이하여 드러내는 방식이다.<sup>17)</sup>

그러나 3이 ‘그때’라는 특정한 시점의 기억을 회상하고 전달하는 것에 치중한 반면, 23은 그 고통이 지금까지 현재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3은 마치 화자가 현재 눈앞에서 대상인 베라 피그넬을 보고 있는 것처럼 서술되고 있다. ‘그네/ 베라 피그넬의 뒷덜미에’라는 구절을 기준으로 하여 앞부분은 과거 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뒷부분은 그것을 기억하는 ‘오늘’의 일로 구별된다. ‘21년 7개월’은 베라 피그넬이 수감되어 있던 실제 기간이고 ‘별이 드는 쪽으로는 한 발짝도 발을 떼지 않는’ 것 또한 베라 피그넬의 과거 상황에 대한 시인의 상상이다. 이를 ‘한 발짝도 발을 떼지 않는다’는 현재형으로 표현함으로써 과거의 사실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저녁은  
日暮라고도 한다.  
日暮는  
내가 누군가의 눈에 눈물을 본  
甲骨文의 그때부터  
저녁을 닦아내고 닦아내는  
하얀

---

으로는 최라영, 『『처용단장』 연구 : “세다가와서” 체험과 무의미시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5권, 한국현대문학회, 2011이 있다.

- 17) 제3부 30에 나오는 ‘눈매가 곱고 일찍 죽은’ 라몬 나바로 역시 스물 둘의 ‘나’와 동일시된 자아이다. 단재, 베라 피그넬, 라몬 나바로가 실제 인물이면서 동일시된 것이라면, 처용은 허구적 인물로서 자아와 동일시되는 경우이다. 바다 용왕의 아들이었다가 세속으로 끌려나온 처용은 통영의 부자집 도련님으로 지내다가 역사에 휩쓸려가게 된 김춘수의 동일시된 자아이다.

얼룩이 되곤 한다.  
 저녁에 어스름 어둠 곁에 서면  
 나무 하나가 머리 빗고  
 불 켜인 그쪽으로 다가간다.  
 세다가와서 감방에서 내가 본  
 크나큰 나의 日暮였다. 그것은  
 하늘을 다 덮는,

— 「처용단장」 제3부 8 전문

이 시에서 화자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일몰은 과거 기억 속의 일모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날이 저물고 있다’는 현실적인 지각은 누군가의 눈물을 처음 보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과 세다가와서 감방에서 보았던 일모의 기억을 불러온다. 그러나 그 경험들은 이미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열린 채로 지속되고 있다. ‘甲骨文의 그때’는 언제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주 오랜 전의 시간을 의미하고, 그 때부터 일모는 ‘저녁을 닦아내고 닦아내는 하얀 얼룩이 되곤 한다’고 되어 있다. ‘닦아내고 닦아내는’은 닦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얼룩이) 되곤 한다’는 그 일이 현재도 부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저녁에 어스름 어둠 곁에 서면/ 나무 하나가 머리 빗고/ 불 켜인 그쪽으로 다가간다.”는 구절 또한 그러한 일들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나다’라는 현재형 종결어미는 과거의 사실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파지적 시간을 뒷받침한다.

위의 시들에서 기억의 계기이자 출발점이 되는 대상이나 사물은 지각적 현재성을 확보하고 있다. 즉 ‘지금’ 시점에서 진눈깨비나 일몰과 같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을 지각하고, 그것이 과거의 지속 선상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회상을 근간으로 한 시들이 현재와의 연속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과거 기억을 호출하여 재구성한 것이라면, 파지에 바탕

하고 있는 시들은 ‘지금’ 주어진 경험들의 지나간 측면을 본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 4. 파지와 예지가 만나는 근원 지점으로서의 ‘살아있는 현재’<sup>18)</sup>

「처용단장」에 드러나는 트라우마는 과거 경험이 현재로 열려있는 파지적 지평을 잘 보여준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버려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새롭게 해석되며 새로운 지평을 향해 열려있다. 즉 파지는 본질적으로 ‘지금’을 중심으로 하여 ‘예지’와 연결되어 있다. 대상을 지각하는 것은 과거 지각의 내용이 남아있음으로 해서 가능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적인 기대가 가능해진다.

외할머니는 統營을  
퇴영이라고 하셨다.  
오늘은 뉘더라  
얼굴이 하나 지워지고 있다.  
눈썹 밑에 눈이 없고  
눈 밑에 코가 없고  
입은 옆으로 비스듬히 돌아앉아 있다.  
외할머니의 퇴영은 통영이 아니랄까봐  
오늘은 아침부터 물새가 울고  
せたがわ署 감방은 (나를 달랜다고)  
들창 곁에 欲知 앞바다만한 바다를 하나  
띄우고 있다.

— 「처용단장」 제3부 6 전문

---

18) ‘살아있는 현재’라는 개념은 후설의 미출간된 유고에서 나타나는 개념으로서 파지와 예지가 겹쳐지는 ‘지금’을 시간의식의 근원적 원천지점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직접적으로 의식된 과거의 영역 [파지]은 생생하게 흐르는 현재 자체에 속한다. 또한 금방 다가올 것으로 의식되는 직접적인 장래[예지]의 지평도 거기에 속한다.” 『제일철학Ⅱ』, 149쪽. 김상록, 앞의 글, 52쪽 각주 64에서 재인용.

이 시는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1~2행)과 시의 내용을 서술하는 ‘오늘’의 시점(3~9행), 과거 경험과 관련된 기억(10~12행)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2행에서 외할머니가 통영을 퇴영이라고 했다는 것은 과거에 실제 있었던 사실을 서술한 회상에 해당한다. 그것은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경험으로서 과거에 이미 완료된 사실로서 제시된다. 10~12행의 감방 경험과 관련된 진술은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과는 다른 과거 시점의 경험이다. 서로 다른 과거의 기억들은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엮이고 있다. 그 계기가 되는 것은 9행 “오늘은 아침부터 물새가 울고”로 추정되는데, 이는 기억들이 발생하는 시점인 ‘근원인상’에 해당한다. 즉 ‘오늘’ 물새가 우는 소리로 인해 떠오르는 기억들을 결합한 것이다.

시에서 ‘오늘’은 화자가 서술하는 시점으로서 지워지거나 없는 부정적인 양태로 표현된다. ‘눈썹 밑에 눈이 없고 눈 밑에 코가 없다’는 것은 ‘눈썹 밑에는 눈이 있고 눈 밑에는 코가 있다’는 경험적 사실 즉 과거를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과거 사실의 지속인 파지적 지평을 품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얼굴이 지워지고 있’는 ‘오늘’의 일로 연결된다. 얼굴이 지워지고 있는 것은 ‘지금’의 일이면서 완료되지 않은 채 미래(눈과 코만이 아니라 입을 포함한 얼굴 전체가 지워질)로 열려있다. 즉 파지적 지평은 ‘지금’에 연결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예지적 지평으로 뻗어있다.

길은 동강 나 있었다.  
 소설 속에 불쑥 나온 言語斷片처럼,  
 눈썹이 없는 아이가 눈썹이 없는 아이를  
 울리고 있었다. 언제까지나  
 아침에 죽고  
 저녁에는 눈을 뜨는 별들처럼  
 동간 난 길은 언제쯤  
 다시 살아날까,

— 「처용단장」 제3부 4 부분

이 시는 일차적으로 과거 사실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2장의 회상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과거 사실은 해당 시점에서 완료된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즉 “길은 동강 나 있었다”는 과거 사실을 서술한 것이지만, “눈썹이 없는 아이가 눈썹이 없는 아이를 울리고 있”는 것은 “언제까지나” 계속 반복되는 일이다. 그것은 아침이면 사라진 것처럼 보이던 별이 저녁이면 다시 보이는 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열린 상태로 반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회상과 파지가 나란히 있다고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동강 난 길은 언제쯤 다시 살아날까,”라는 미래적 기대가 성립된다. 아침에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던 별이 저녁에 다시 살아난다는 경험에 비추어 ‘동강 난 길도 살아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예지’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길은 동강 나~다시 살아날까,”는 파지와 지금, 예지가 만나는 ‘살아있는 현재’에 대한 시간의식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다.

울고 간 새와  
 울지 않는 새가  
 만나고 있다.  
 구름 위 어디선가 만나고 있다.  
 기쁜 노래 부르던  
 눈물 한 방울,  
 모든 새의 헛바닥을 적시고 있다.

— 「처용단장」 제2부 서시 전문

위의 시는 내용상 세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 문장은 모두 ‘~고 있다’라는 현재형으로 끝을 맺고 있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서술된 시간에는 차이가 있다. “울고 간 새와 울지 않는 새가 만나고 있다”는 ‘울



고 간 새'라는 과거의 완료된 사실과 '울지 않는 새'라는 현재의 사실이 결합되고, 그 두 마리의 새가 현재 '만나고 있다'고 서술된다. '울고 간 새'는 형태상 과거로서 울고 가버린 것으로 행위가 완결된 과거 즉 회상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울지 않는 새'는 정확하게 말하면 지나간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울지 않기 시작해서 현재도 울지 않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즉 울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울지 않는' 과거 상태의 지속으로서 파지라고 볼 수 있다.

'울고 간 새'와 '울지 않는 새'는 "구름 위 어디선가 만나고 있다."라고 서술된다. '만나고 있다'는 앞문장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상태(만남)의 과거로부터의 지속을 나타낸다. "기쁜 노래 부르던 눈물 한 방울, 모든 새의 헛바닥을 적시고 있다."에서 '적시고 있다'도 마찬가지다. 이는 만남과 적심이라는 현상이 과거로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서 과거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파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구름 위 어디선가 만나고 있다"에서 '구름 위 어디선가' 만나고 있다는 것은, 이 만남이 시간과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미래적인 '기대'에 걸쳐져 있음을 보여준다.<sup>19)</sup> '만나고 있다'는 과거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어디선가'라는 부사가 결합됨으로써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를 향해 열려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미래는 시간적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이 아니라 확정짓기 어려운, 열려있는 상태를 뜻하는 예지적 지평이다.

만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은 '울고 간 새와 울지 않는

19) 확정되지 않은 공간인 '어디선가'는 동시에 확정되지 않은 시간의 의미를 내포한다. 김춘수의 시에서 '예지'는 종종 공간적인 것으로 바뀌어 표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봄을 지나 여름을 지나/ 개울을 지나/ 늙은 가재가 사는 개울을 지나, /살구꽃 지는 마을을 지나 / 소쩍새와 銀魚가 사는 마을을 지나, /봄을 지나 여름을 지나/ 개울을 지나,」「처용단장」 제2부 6)에서, '늙은 가재가 사는 개울'이나 '살구꽃 지는 마을', '소쩍새와 은어가 있는 마을' 등은 어린 날의 기억 속에 있는 공간으로서, 이 공간들을 이동하는 것은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과 나란히 설명되고 있다. 이는 시간을 공간적인 것으로 가시화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새가 만나고 있다'는 파지적 지평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로 미루어 '어디선가' 울고 있을 것이라는 예지적 지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것은 '지금'이다. 결국 '지금'은 파지적 지평과 예지적 지평을 포함하며 각각 전후로 열려있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파지와 예지를 품은 삼중적인 '살아있는 현재'인 것이다.<sup>20)</sup> 위의 시는 이러한 현상학적 시간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 5. 맺는말

김춘수의 시에 나타나는 시간에 대한 인식은 현상학적 사유와 연결되면서 '의식 경과의 내재적 시간'을 탐색하는 것으로 변모된다. 「처용단장」은 과거 시인의 경험을 주된 소재로 한 시들로서 의식 내적인 시간이 잘 드러나 있다.

현상학적 시간의 측면에서 볼 때, 「처용단장」은 파지와 예지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과 결합된 '살아있는 현재'를 보여준다. 파지는 시의 화자가 현실적인 계기에 의해 과거 경험을 불러오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열려있는 채로 지속되고 있는 경우이다. 트라우마를 드러내는 시들이 대표적인 예로서, 트라우마는 과거의 경험이 여전히 현재로 열려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트라우마는 원인이 되는 경험이 은폐된 채 남아있다가 유사한 사건의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사건과 중첩되어 작용한다. 과거는 완료되거나 현재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은폐되어 잠재적인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파지가 과거 경험에 대한 이차적 기억인 회상과 구별되는 것은, 그것이

---

20) “생동하는 현재는 이른바 근원적 종합을 통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속 유출되는 원인상이 ‘아직 불드는’ 내적 시간의식의 힘에 의해 파지의 상으로서 계속 이어지면서 아직 유지되고, 또 계속 유출되는 원인상은 ‘미리 불드는’ 내적 시간의식의 힘에 의해 예지의 상으로서 계속 이어지면서 미리 주어진다. 이를 통해 내적 시간의식은 여러 형태의 시간성들을 형성해내는 근원적 종합 작용을 저절로 수행한다.” - 조광제, 앞의 책, 133쪽.

현실적인 계기를 가지고 ‘지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회상에서 기억은 ‘지금’ 시점에서 환기되기는 하지만 현재와 무관한 것으로서, 과거 경험에 대한 인상을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된 것이다. 재구성된 기억 또한 과거의 일부로서 환기될 뿐 현재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와 달리 파지는 현실적인 사물이나 대상이 계기가 되어 기억을 촉발시키고 그것이 과거로부터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파지적 지평을 바탕으로 하여 예지가 가능해진다. 즉 과거의 어떤 경험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그에 의거하여 미래적인 것을 예측하는 것이다. 과거 경험에서 있었던 대상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거나, 과거의 만남을 바탕으로 하여 어디선가 만남이 이어지고 있다고 기대하는 시들이 이에 해당한다. 과거가 현재에 지속되고 있는 파지적 지평과 이에 바탕한 예지적 지평은 ‘지금’을 중심으로 하여 삼중으로 겹쳐지면서 각각 전후로 뻗쳐져 있는 셈이다. 이처럼 파지와 지금, 예지가 하나로 통합된 ‘살아있는 현재’는 현상학적 시간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학적 시간 분석이 가능한 것은 기본적으로 「처용단장」이 의식의 지향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처용단장」은 현상학적 환원 후에 대상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으로서, 대상을 제거한 이전 단계의 무의미시와는 달리 대상이 지니고 있는 지평적 지향성을 드러낸다. 지평적 지향성은 대상의 외부적 환경인 ‘외적 지평’과 주관적인 의미 맥락인 ‘내적 지평’까지를 포함한다. 시간의식의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지각된 대상의 시간성과 그것을 지각하는 주체의 시간성을 아울러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즉 의식의 내적 흐름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이 외부 대상의 시간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김춘수의 후기시의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후기시는 실험성보다는 서정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소재가 주를 이루고 삶과 관련된 감각적 측면들이 전면화되는 등 언어 실험과 내면의식의 표출에 집중했던 무의미시와는 상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무의미시’라는 폐쇄된 의식의 실험이 결국 의식 외적인

생활세계 혹은 지평을 향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김춘수가 ‘무의미시’를 실패로 끝났다고 한 것은 외부와 완전하게 단절된 언어 실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후기 시가 의식 외적인 대상(세계)을 지향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파지와 지금, 예지로 연결되는 시간은, 의식이 본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지향적인 특징을 시간적인 측면에서 구체화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의식 내적인 시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그것이 외부적인 대상의 시간과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내적인 의식과 외적 대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의식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은 김춘수 시 세계의 변화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틀이라고 할 수 있다.

### 기초자료

김춘수, 『처용단장』, 미학사, 1991.

### 논문 및 저서

김상록, 「시간과 지향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성희, 「김춘수 시의 시간의식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7.

김영민, 『현상학과 시간』, 까치, 1994.

김용태, 「무의미시와 시간성」, 『어문학교육』 9집, 한국어문교육학회, 1986.

남기혁, 「김춘수의 무의미시론연구」, 『한국문화』 24,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9.

문혜원, 「김춘수의 시와 시론에 나타나는 현상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 후설 현상학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86집, 한국언어문화회, 2013.

문혜원, 「김춘수의 무의미시의 현상학적 특징 연구」, 『Comparative Korean Studies』, 22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4.

미셸 콜로, 정선아 역, 『현대시와 지평구조』, 문학과지성사, 2003.

박은희, 「김중삼 김춘수 시의 모더니티 연구 : 시간의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서동욱, 『들뢰즈의 철학』, 민음사, 2002.

서영희, 「김춘수의 「처용단장」에 나타난 시간의식」, 『한민족어문학』 61집, 한민족어문학회, 2012.

에드문트 후설, 이종훈 역, 『시간의식』, 한길사, 1996.

이기상, 「시간, 시간의식, 시간존재」, 계간 『과학사상』, 2000.봄

조광제, 『의식의 85가지 얼굴』, 글항아리, 2008.

조혜진, 「김춘수 시 연구－시간의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최라영, 「『처용연작』 연구 : “세다가와서” 체험과 무의미시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5권, 한국현대문학회, 2011.

〈Abstract〉

A Study on Time-consciousness of Kim, Choon-soo's  
“Cheoyongdanjang”

— focused on a comparison with Husserl's phenomenological  
Time-consciousness

Mun, Hye-won  
(Ajou Univ.)

Recognition of time in Kim, Choon-soo's poem is transfigured to find 'implicit time of conscious progression' through phenomenological thinking. Time of inner consciousness is expressed well in “Cheoyongdanjang”, poem based on poet's experience,

Basically, time of “Cheoyongdanjang” is centering around the present time, but the present time is rather the point of recalling memory than poet or narrator's existing time. In other words, it is not a point of objectively existing time, but a point of poetic moment of subject or accident-occurring time of inner consciousness. Therefore, it is notion of phenomenological time 'Jetzt'.

In viewpoint of phenomenological time, “Cheoyongdanjang” is including ‘Lebendige Gegenwart’, combination of ‘Retention’, ‘Protention’, and ‘Jetzt’. ‘Retention’ means the case that the narrator recalled the experience because of practical chance and remaining until ‘Jetzt’. Poems dealing with trauma are representative examples; trauma shows the case of remaining past experience. The experience is concealed until the occurrence of similar incident, and then activates trauma. Past is not over, or break with the present, but is concealed to be continued in latent state.

‘Retention’ is distinct from ‘Wiedererinnerung’, the secondary memory of past, because it is connected to ‘Jetzt’ by practical chance. Memory is recalled

without any relation to ‘Jetzt’ in ‘Wiedererinnerung’, and it is reconstructed based on impression of past experiences. Reconstructed memory is also recalled as the part of past, disconnected to the present time. Contrastively, ‘Retention’ is memory that continued from past and recalled by practical objects.

‘Protention’ is possible by ‘Retentional Horizont’. In other words, predicting the future is able by reasoning continuing experience of past. Poems anticipating the existence of objects in past experience or hoping relations of the present time from the past relationship. Based on ‘Retentional Horizont’ of continuing past through the present, ‘Protentional Horizont’ is trebly overlapped, centering around the present time and reaching toward the front and the rear. ‘Lebendige Gegenwart’, the union of ‘Retention’, ‘Jetzt’, and ‘Protention’, is describing the phenomenological time.

Analysis of the phenomenological time is able because “Cheoyongdanjang” is the poem of conscious directivity. By reconstructing object after the ‘epoche’, “Cheoyongdanjang” expresses ‘Horizontal Intentionalitat’ of objects, unlike nonsense poetry of the previous step. ‘Horizontal Intentionalitat’ includes outer Horizont, the exterior state of the object, and inner Horizont, the subjective meaning connection. In the viewpoint of Time-consciousness, it is understood to include the temporality of both recognized object and recognizing subject. Therefore, to analyze Time-consciousness in “Cheoyongdanjang” is a significant basis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Kim, Choon-soo’s poem and phenomenology.

**Key words:** “Cheoyongdanjang”, Time-consciousness, Edmund Husserl, phenomenology, Wiedererinnerung, Retention, Protention, Jetzt, lebendige Gegenwart

논문접수일 : 3.15 / 심사기간 : 3.16 - 4.5 / 게재확정일 : 4.10
-------------------------------------------------